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1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41.10원 (+0.1원)

KOSPI

7,033.92 (-17.72, -0.25%)

KOSDAQ

836.92 (+6.55, +0.79%)

국고채 10년 금리

4.453 (+0.052%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철강금속

동: 새로운 슈퍼싸이클! [박성봉, 유재선]

Global Asset Strategy

해외채권

(일본) 엔화와 국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허성우]

기업분석

피에스케이홀딩스

거침없는 실적 [김록호]

산업분석

자동차

(공작기계) 일본과 한국의 공작기계 수주 호조 [송선재]

자동차

(중국 8월) 중국 전기차의 내수 부진 vs. 수출 급증의 의미 [송선재]

Weekly

통신

통신 장비주 상승에 유의하세요 [김홍식]

유틸리티

18일 대미투자 MOU와 전기본 토론회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Oil, 대한항공, 한화생명, 농심,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텍플러스, 아로마티카

하나증권

2026년 9월 11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0일

풍산(103140)

BUY | TP 110,000원 | CP 78,800원

대한전선(001440)

BUY | TP 60,000원 | CP 29,700원

대창(012800)

Not Rated | CP 1,196원

철강금속

동: 새로운 슈퍼사이클!

동 광산부터 제련까지 공급 병목 심화

2025년 이후 글로벌 동 시장은 Grasberg, El Teniente, Kamoakakula 등 주요 광산의 자연 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과 광석 품위 저하가 겹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신규 프로젝트의 램프업에도 기존 광산의 설비 노후화와 용수,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단기간 내 광산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며 지난해의 생산 차질 영향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광산들이 많다. 이에 동정광 현물 제련수수료(TC)도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중국 제련소들은 정광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허위 세금계산서 단속 강화로 중국내 동스크랩까지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외 지역에서도 낮은 TC로 제련설비 구조조정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광산 생산 부진이 정광 부족을 거쳐 정련동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기동 가격 사상 최고치, 연말까지 강세 지속 전망. 중장기 수요 증가도 기대

최근 전기동 가격은 공급 차질 우려와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며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여기에 미국의 전기동 관세 부과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연말까지 미국향 물량 유입과 거래소 재고 재편이 가격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ICSG는 2026년 글로벌 정련동 시장에서 9.6톤의 공급과잉을 전망하고 있지만, 주요 광산의 생산 정상화 지연과 자연재해, 제련 원료 부족을 감안하면 공급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국 수요 증가를 전망은 기존 1.0%에서 1.9%로 상향됐고 상반기 실제 명목수요도 3.2% 증가한 만큼 수요는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에 하나증권은 2026년 정련동 공급 부족과 함께 연평균 전기동 가격으로 톤당 14,000달러를, 4분기 평균으로는 14,700달러를 전망한다.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 및 에너지 전환이 동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용량은 '24년 67GW에서 '30년 163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은 '30년까지 약 4조 위안을 전력망 현대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단위 발전량당 구리 사용량이 많이 에너지 전환이 진행될수록 구조적인 동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최선호주 풍산 제시, 대한전선과 대창도 관심 필요

전기동 가격 사상최고치 경신 가운데 4분기 추가 상승이 예상되어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풍산은 동 가격 상승에 따른 메탈게인 및 재고평가이익이 당분기 영업 실적에 즉각 반영되어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또한 황동봉 및 copper rod 업체인 대창, 전력선 및 케이블 업체인 대한전선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

철강/비철금속 박성봉 sbpark@hanafn.com
유틸리티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지현 boxhyun@hanafn.com

2026년 9월 10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일본] 엔화와 국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 엔화 강세와 국채 강세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아지는 중
- 9월 인상 전망. 단, 급격한 긴축은 엔 캐리 언와인딩 촉발해 금융시장 변동성 높일 수 있음. 부작용 감안해 점진적인 정상화 기조 이어갈 것
- 금리 레벨은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 단, 9월 인상 이후에도 최종금리 수준이 상향조정 될 수 있음. 단기적으로 10년 금리 3.0% 상회 가능성에 무게

BOJ: 9월 인상 전망

엔화 약세와 일본 국채 약세가 서로를 강화하던 기존의 악순환이 이제는 엔화 강세와 국채 강세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8월 말 미-일 환율 공조와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으로 일시적으로 급락한 이후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으나, 9월 들어 가파르게 하락 중이다. 공교롭게도 일본 10년 금리가 3%에 도달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를 기점으로 엔화와 일본 국채는 동시에 강세로 전환됐다.

[도표 1]

과거에는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재정 우려를 동반하면서 엔화 약세를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흐름이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 엔화 강세는 수입물가와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안정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 역시 완화될 수 있어 다시 엔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선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금리가 3% 부근까지 상승했다는 점은 중기 시계열에서 일본 국채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살펴봤다. 8월 한 달 동안 일본 외환보유액은 796억 달러 감소해 사상 최대 월간 감소폭을 기록했다. 외화자산은 946억 달러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는 외화증권은 877억 달러 감소했다. 반면 금 보유액의 평가액은 145억 달러 증가하면서 전체 외환보유액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 [도표 2]

일본이 연준의 FIMA 레포 시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개입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매각해 조달한 자금으로 엔화 매수에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재무성이 밝힌 개입 규모는 15.9조 엔(당시 환율 기준 986억 달러)으로 규모가 유사하다.

이제는 미국 국채의 매도 주체가 일본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동안 GPIF와 생명보험사 등 일본 기관투자자들은 낮은 금리와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해외채권 투자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10년 금리가 3% 수준까지 상승하고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투자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해외채권의 엔화 환산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해외채권을 매도하고 자금을 국내로 되돌릴 유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09월 11일 | 기업분석_3Q26 Preview(Report)

BUY (유지)

목표주가(12M) 220,000원(상향)

현재주가(9.10) 155,0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36.92
52주 최고/최저(원)	166,500/38,600
시가총액(십억원)	3,342.2
시가총액비중(%)	0.71
발행주식수(천주)	21,562.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23.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8.1
외국인지분율(%)	6.87
주요주주 지분율(%)	
박경수 외 20 인	65.30
국민연금공단	5.1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80.9	388.1
영업이익(십억원)	110.6	158.2
순이익(십억원)	142.9	188.8
EPS(원)	6,628	8,756
BPS(원)	29,194	36,845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15.5	207.8	272.2	389.3
영업이익	88.5	73.4	102.1	150.4
세전이익	116.9	107.3	157.0	216.7
순이익	95.8	91.7	133.9	184.2
EPS	4,444	4,252	6,208	8,543
증감율	124.44	(4.32)	46.00	37.61
PER	8.56	10.89	24.97	18.14
PBR	1.90	1.97	5.32	4.24
EV/EBITDA	7.02	10.00	29.24	19.64
ROE	24.80	19.55	23.61	26.01
BPS	20,010	23,484	29,109	36,572
DPS	700	1,080	1,080	1,080



Analyst 김록호 rookkim@hanafn.com
RA 박규연 gyujeonpark@hanafn.com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

거침없는 실적

3Q26 Preview: 영업이익 전분기대비 154% 증가

피에스케이홀딩스의 26년 3분기 매출액은 825억원(YoY -9%, QoQ +74%), 영업이익은 350억원(YoY -15%, QoQ +154%)으로 전망한다. 지난 분기 CoWoS향 장비 매출 인식이 이연되었던 것이 반영되며 전분기대비 큰 폭의 외형 증가 및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HBM 중심의 신규 증설과 TSMC 및 OSAT 업체들의 CoWoS 패키징 라인 증설에 힘입어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 연초 예상했던 것처럼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언급한 매출 이연으로 인해 상저하고 흐름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는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실적 눈높이 상향

2027년 실적을 대폭 상향한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HBM 중심 증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CoWoS 라인의 증설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Nvidia의 회계연도 2028년(2027년 1월~2028년 1월) 매출액 증가폭은 70% 이상, Broadcom의 XPU 매출액은 2027년, 2028년 각각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언급되었다. HBM 수요 가시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위한 CoWoS 패키징 라인 역시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TSMC는 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연간 Capex를 기존 520~560억 달러에서 600~640억 달러로 상향했다. 2027년 Capex 컨센서스는 약 800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OSAT 업체들의 패키징 라인도 증설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SE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CAPA는 2026년 2만장/월에서 2027년 4~4.5만장/월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mkor의 관련 CAPA 역시 1만장/월에서 1.5~2만장/월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피에스케이홀딩스의 2027년 매출액은 3,893억원, 영업이익은 1,504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3%,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돈보이는 전방 수요로 인한 외형 성장 차별화에 주목

피에스케이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20,000원으로 상향한다. 글로벌 반도체에서 가장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HBM과 CoWoS를 전방 산업으로 확보하고 있어 외형 성장이 돈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매출액 성장률도 30% 이상으로 양호한데, 2027년에도 성장률이 40%를 상회하면서 소부장 업체 내에서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oWoS CAPA의 경우 향후에 증설 계획이 상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업이익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열려 있어 소부장 내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2026년 9월 11일 | 산업분석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10일

DN오토모티브(007340)

BUY | TP 80,000원 | CP 46,200원

자동차

일본과 한국의 공작기계 수주 호조

일본 공작기계 수주는 8월 +65% (YoY), 한국 공작기계 수주는 7월 +79% (YoY)

9월 9일 발표된 일본공작기계공업회(JMTBA)의 통계에 의하면, 2026년 8월 수주총액은 1,979억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65% 증가했다. 일본 내수로부터의 수주총액은 515억엔으로 62% (YoY) 증가했고, 해외로부터의 수주총액은 1,463억엔으로 66% (YoY) 증가한 것이다. 8월까지 누적 수주 증가율은 41% (YoY)인데, 8월 증가율 +65%는 1분기 +26%, 2분기 +45%, 그리고 7월 +50%를 넘어서면서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신호가 확인된다. 지난 8월에 발표된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KOMMA)의 수주 통계는 6월 3,843억원(+31% (YoY))에 이어 7월 3,687억원(+79%, 전년 기저 낮음)을 기록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7월까지 누적은 2.24조원으로 23% (YoY) 증가했고, 분기별로도 1분기 +12%, 2분기 +19%로 증가율이 높아진 흐름이다. 생산 역시 6~7월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며 수주 증가가 실제 물량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공작기계 업체들은 수주 전망치를 상향 중

이러한 내용들은 일본 공작기계 업체들의 최근 실적발표에서도 확인되었다. 일본 공작기계 및 CNC 제조업체들인 DMG모리는 1,798억엔(+41%, 분기 최대), FANUC은 2,819억엔(+37%), 마키노는 920억엔(분기 최대), 오쿠마는 753억엔(+39%, 분기 최대)이라는 최근 분기 수주를 공개했다. 4사 모두 연간 계획을 상향했고, 글로벌 1위인 DMG모리는 연내에만 두 차례 상향했으며(5,400억엔→5,800억엔→6,300억엔), 수주 회복을 2030년까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선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증가율 자체와 함께 수요의 구성이다. 4사 모두 공작기계 수요의 견인 산업으로 자동차/부품(EV 포함) 등 기존 산업 대신 우주항공/방산/IT 등을 성장 산업으로 제시했다. DMG모리는 수주의 70%가 우주항공/방산/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에너지/의료 등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고, 오쿠마는 유럽 수주가 125%(YoY) 증가한 원인을 유럽의 방위력 강화로, 미국/일본 수주를 우주항공/데이터센터/에너지로 특정했다. 마키노는 우주항공 수주가 전년 대비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과거 사이클을 지배했던 자동차/부품의 교체 수요를 대신해 고부가 정밀가공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현재 사이클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사이클 주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주 사이클 강화는 하반기 실적에 기여. 다만, 환율 하락은 아쉬운 상황

공작기계 수주에서 매출 인식까지 통상 6개월의 시차를 감안하면 2026년 하반기~2027년까지 매출액과 가동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1위의 공작기계 업체인 DN솔루션즈를 연결 회사로 가지고 있는 DN오토모티브(투자익건 BUY, TP 8.0만원)도 상반기 및 7월 수주가 호조였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6월 말 1,548원에서 9월 10일 현재 1,340원 이하로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은 수출 기업으로서 아쉬운 상황이다. DN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상반기 환율 효과가 영업이익에 300억원 초반 기여했는데(상반기 평균환율 차이 +57원), 이는 분기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10원당 약 25억원 정도의 이익 변동 요인으로 파악된다.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중국 자동차 판매 동향(2026년 8월)

중국 전기차의 내수 부진 vs. 수출 급증의 의미 | 2026.9.11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박태웅 taewoongpark@hanafn.com

Key Insight: 중국발 전기차 Deflation 부담

- 시사점**
- 중국 자동차 소매판매 증가율은 8월 -24% (YoY)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으로 20%대 감소 8월까지 누적으로도 -21% (YoY)
 - 이 중 신에너지차의 소매판매 성장률도 8월 -10% (YoY),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12% (YoY) 기록
 - 2025년 4분기 이후 과열 경쟁의 자제 및 2026년 세제 혜택 변경(10% 면세에서 5% 면세, 즉, 구매세가 0%→5% 인상)의 부정적 영향
 - 당분간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동인이 크지 않아 10월까지 중국 자동차 판매는 감소 예상. 11월부터는 전년 동월대비 기저 효과 발생
 - 중국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강세. 8월 및 누적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각각 77%/71% (YoY) 증가
 - 특히, 중국의 신에너지 승용차 수출은 8월 및 누적 +155%/+135% (YoY)로 고성장 지속
 - 중국 내 신에너지차 생산이 1,500만대에 육박한 상황에서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강화하는 전략
 - 더불어 중국 전기차들의 해외 전기차 공장의 건설/가동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발 전기차 Deflation 부담이 가중
 - 현대차/기아의 중국 소매 및 도매 판매는 시장과 유사한 수준에서 감소. 중국형 전기차 출시를 통해 만회한다는 목표
 -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판매 중 중국 비중이 이미 크게 낮아져 중국 내 부진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
 - 다만, 미국 이외 유럽/신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점은 자동차 실적 및 Valuation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중국 자동차 시장: 8월 도매판매 -6%, 소매판매 -24%, 생산 -5%, 수출 +77% 기록. 신에너지차 소매판매는 -10%, 비중 64.7%로 상승

- 도매판매**
- 8월 237.1만대(-6% (YoY)). 승용차 235.3만대(-5% (YoY)), 세단/SUV/MPV -24%/+10%/-14%, 상용차 1.8만대(-44% (YoY))
 - 8월 누적 도매판매는 1,729.7만대(-5% (YoY))
- 소매판매**
- 8월 155.4만대(-24% (YoY)). 승용차 154.1만대(-24% (YoY)), 세단/SUV/MPV -33%/-16%/-16% (YoY), 상용차 1.3만대(-43% (YoY))
 - 8월 로컬 브랜드 -19% (YoY), 비중 69.9%(+4.1%p). 주요 합작 브랜드 -35%, 고급 브랜드 -26%
 - 8월 누적 소매판매는 1,184.5만대(-21% (YoY))
- 생산**
- 8월 236.1만대(-5% (YoY)). 승용차 234.8만대(-5% (YoY)), 세단/SUV/MPV -24%/+11%/-13%, 상용차 1.3만대(-66% (YoY))
 - 8월 누적 생산은 1,717.7만대(-6% (YoY))
- 수출**
- 8월 89.4만대(+77% (YoY)). 신에너지 승용차 수출 비중은 57.9%(+17.6%p (YoY)). 전체 생산 중 수출 비중은 37.9%(+17.6%p (YoY))
 - 8월 로컬 브랜드의 수출은 78.0만대로 +82% (YoY), 합작/고급 브랜드의 수출은 10.8만대로 +53% (YoY)
 - 8월 누적 수출은 610.1만대(+71% (YoY)). 전체 누적 생산 중 누적 수출 비중은 35.5%(+15.9%p (YoY))
- 친환경차**
- 8월 신에너지차의 소매판매는 100.5만대(-10% (YoY), 비중 64.7%(+10.0%p)). 누적 666.9만대(-12% (YoY), 비중 56.3%(+5.6%p))
 - 8월 BEV/PHEV/EREV 소매판매는 각각 69.8만대(+1% (YoY))/22.6만대(-29% (YoY))/8.1만대(-23% (YoY))
 - 누적 BEV/PHEV/EREV 소매판매는 각각 444.2만대(-4% (YoY))/161.5만대(-27% (YoY))/61.3만대(-18% (YoY))
 - 8월 신에너지차의 도매판매는 151.0만대(+17% (YoY), 비중 63.7%(+12.2%p)). 누적 976.2만대(+9% (YoY), 비중 56.4%(+7.5%p))
 - 8월 신에너지차의 생산/수출은 152.8만대(+19%)/51.8만대(+155%). 누적 생산/수출은 975.8만대(+10%)/332.9만대(+135%)

업체별 점유율: BYD/지리기차/체리기차 상승 vs. VW/장안기차 하락

- 현대차/기아**
- 현대차의 8월 소매판매 0.6만대(-33% (YoY)), 점유율 0.4%(flat), 도매판매 0.6만대(-45% (YoY)), 점유율 0.2%(-0.2%p)
 - 기아의 8월 소매판매 0.5만대(-35% (YoY)), 점유율 0.3%(flat), 도매판매 0.5만대(-24% (YoY)), 점유율 0.2%(-0.1%p)
 - 현대차/기아의 8월 합산 소매판매/도매판매는 각각 1.1만대(-34%)/1.1만대(-37%). 점유율은 각각 0.7%(-0.1%p)/0.5%(-0.2%p)
 - 8월 누적 합산 소매판매/도매판매는 각각 10.6만대(-20%)/10.3만대(-21%). 점유율은 각각 0.9%(flat)/0.6%(-0.1%p)
- 타OE**
- VW의 12월 소매판매 -36% (YoY), 점유율 8.4%(-1.5%p)
 - 지리기차/장안기차/체리기차 8월 소매판매 -20%/-34%/-21 (YoY), 점유율 11.0%(+0.5%p)/5.1%(-0.8%p)/5.5%(+0.2%p)
 - BYD 8월 소매판매 23.4만대(-20% (YoY)), 점유율 15.1%(+0.8%p). 테슬라는 8월 소매판매 순위권 이탈(10위 이하, 5만대 이하)

통신 장비주 상승에 유의하세요

통신 서비스/장비 Weekly | 2026.9.11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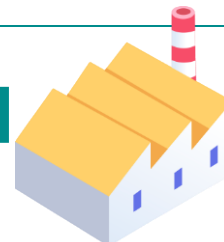
주간 동향 및 코멘트

다음주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통신장비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실적 호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급업체 감소에 따른 시장점유율 상승에 기인한다. 아직 글로벌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은 비수기이지만 유지 보수 및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장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LIG아큐버, 쉘리드가 대표적이다. 만약 향후 장비 수요가 증가한다면 공급업체 감소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매출액이 급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2027년 미국 주파수 경매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신규 주파수 경매 및 할당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그렇다. 미국은 4.0GHz 대역을 2027년 4월 할당하기로 했으며 국내는 아직 미정이지만 3.7GHz를 2027년 상반기 경매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 모두 여태까지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며 주파수 할당 폭도 크다. 미국은 2027~2029년 800MHz라는 역대급 주파수 할당의 시작점이라 빅 이슈로 꼽히며, 국내는 상대적으로 적은 5G 주파수 사용 폭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관심을 끈다. 수급적으로 보면 2027년 통신장비 빅사이클 진입이 예상된다.
- 과거 통신장비업체 주가는 실적을 1~2년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더불어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실적 전망, 통신사 CAPEX 전망, 주주 전망, 주파수 경매/BEAD 프로그램 등 규제 기관 정책 등에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 개별업체 주가가 혼자 상승하기 보단 테마를 형성하며 통신장비 업종이 동시에 상승/하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업황 호전 기대감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단기 실적보단 장기 스토리가 중요한 전형적인 네러티브 섹터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미국 영향으로 2027년 2분기 통신장비 업종 호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2025년 2분기 대다수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이 진바닥을 확인하고 2026년 상반기 크게 오른 후 6~7월 큰 폭의 반락 과정을 나타냈다가 8월 이후 다시 반등을 시도 중이다. 과거 통신장비 업종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2027년 진입 이전부터 2027년 4월 미국 C밴드 주파수 경매까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상승은 장기 파동 중 2차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다수 통신장비 종목들이 2027년 상반기내 올해 5월 고점을 넘어서는 전망이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 1년간 통신장비 업종 수익률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상당수 종목들이 고점 대비 여전히 50%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1개월간 일부 종목들의 주가 상승 폭이 2배에 달한 상황이지만 낙폭을 감안 시 향후 1년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할 종목이 다수 등장할 것이라 판단이다. RFHIC/KMW/LIG아큐버/쉘리드/오이솔루션 등 선발 통신장비 업체 중심으로 장기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엔 SKT 조차 박스권 움직임에 갇히면서 통신 3사 주가가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을 연출 중이다. 이익 증가 기대감을 높일 특별한 호재가 없고 시중 금리를 감안할 때 기대배당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 주가 부진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2027년 상반기까지 길게 보면 통신서비스 투자매력도가 높아 현 시점 저점 매수에 임할 것을 권한다. 2026년과 달리 2027년 시중 금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통신사 이익 성장이 지속되면 4%를 넘는 통신사 기대배당수익률이 매력적일 수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신규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당연히 새로운 5G 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 오랜만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기대감 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다음주 통신서비스 업종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KT=LGU+ 순으로 제시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SKT를 최선호하지만 KT와 LGU+ 역시 현 주가에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통신장비주 중에선 미국/국내 주파수 경매 관련주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한다. RFHIC/KMW/HFR//LIG아큐버/쉘리드/오이솔루션이 대표 수혜주이다.

18일 대미투자 MOU와 전기본 토론회

유틸리티 Weekly | 2026.09.11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주간 리뷰 및 관심종목

주간 리뷰

- 주간 커버리지 합산 수익률은 시장을 1.5% 하회했다. 9일 종가 기준 WTI 97.3달러/배럴(WoW +5.5%), 미국 천연가스 2.8달러/mmbtu(-6.3%), 아시아 LNG 현물 24.7달러/mmbtu(+3.9%), 호주산 유연탄 147.4달러/톤(+0.5%), 원/달러 환율 1,340.0원(-1.4%)을 기록했다. 겨울 시작 시점까지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지속적인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 9월 18일은 대미투자 1호 관련 MOU 체결이 예상되는 날이다. 언론에 보도된 3가지 협력 내용 중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는 내용의 구체성을 감안하면 알려진 내용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전의 경우 단기적인 착공을 보장하기보다는 역할 배분의 방향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프레임워크 수준의 협약이 예상되며 알래스카 가스전도 마찬가지다. 원전의 경우 착공 확정을 전제할 때 한국과 미국 밸류체인 교집합에 위치한 기자재 업체들의 실제 수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설계는 추진 여부에 더해 국가별 역할 배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으나 무에서 유로 변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 시 수혜 강도가 제일 높을 전망이다. 시행사 역할을 맡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수혜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같은 날 12차 전기본 7차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석탄 조기 폐지 방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발전소 정비 인력 등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방안에 논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출력 조절이 용이한 석탄 발전소의 비중 감소 영향을 메꿀 수 있는 LNG 발전소로의 전환, 백업전력 확보 목적 ESS의 필요성 등도 강조될 수 있다. 향후 미래 전력 Mix 확보에서 전력 적기 공급과 탄소 중립 사이에 위치한 현재 정부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에 가까울지 가늠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일별 SMP는 월초 160원/kWh 레벨에서 110원/kWh 수준까지 낮아졌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흐름과 달리 일별 SMP는 오히려 8월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이다. 태양광과 원자력 기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비수기로 진입함에 따라 전력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도 낮아졌고 원전 이용률도 3분기 70% 후반에서 4분기 80% 초반까지 회복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 단기 완화로 한국전력 3분기 실적은 기존 우려보다 양호할 여지가 있다.
- 한편 높아진 천연가스 현물 가격과 중동산 LNG 비중 감소의 조합을 감안하면 겨울철 성수기 원가 흐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LNG 도입가격 상승을 만회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전망이다. 반대급부로 원재료 Mix에서 Henry Hub 연동 물량 비중이 일정 부분이라도 존재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초과수익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산 LNG 직도입 업체들에게 수혜가 집중되는 시기다. 지역별 SMP 시행은 우려 요인이지만 만약 국정감사 이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3분기는 별다른 규제 이슈 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PPA 계약은 가능하지 않다. 법률 개정 여부와 별개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의 변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PPA 가격이 소매가격보다 낮다면 연결 실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없고 그렇지 않다면 PPA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전 기여도가 0으로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한국전력 수익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소매요금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PPA로 빠져나가는 수명만료로 폐쇄가 되든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KAU26) 가격은 10일 종가 기준 30,450원으로 전주대비 1.7% 상승, YTD 192.8% 상승했다.

종목 코멘트

- 한국전력: 9월 SMP 낮게 형성 중. 태양광 설비용량 증가로 비수기 LNG 연료비단가와 SMP 격차 점차 확대될 전망
- 한전기술: 대미투자 MOU 결과 확인 필요. 북미 대형 원전 조기 착공 가능성 및 노형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 SK가스: 주가는 유가 상승에 반응. LPG/LNG 옵셔널리티 발동 가능 국면. 지역별 SMP 내용 구체화 전까지 우호적 시각 유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9/7	1,447,000	1,423,000	-1.66%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교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스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7	548,000	561,000	2.3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의 1.48조원 전망
S-Oil (010950.KS)	9/7	157,300	154,900	-1.53%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9/7	30,200	29,550	-2.15%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한화생명 (088350.KS)	9/7	5,740	5,980	4.18%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농심 (004370.KS)	9/7	430,000	412,500	-4.07%	•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7	144,000	155,000	7.64%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7	48,300	51,400	6.42%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텍플러스 (064290.KQ)	9/7	40,150	48,900	21.79%	• 북미 고객사향 반도체 검사장비 수주 확대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수혜 기대 • 고마진 반도체-기판 검사장비 비중 확대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기대
아로마티카 (0015N0.KQ)	9/7	10,120	10,100	-0.20%	• 아마존 판매 급증과 북미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매출 고성장 지속 전망 • 자체 생산·R&D 기반의 높은 제품 경쟁력과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중장기 성장 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38%	-1.79%p	+76.97%	+12.4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853,000	12.51%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54,900	3.82%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65,000	-2.21%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08,000	-8.77%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67,000	-2.73%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61,000	22.22%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970	-1.16%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00,000	22.59%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중산 (103140.KS)	8/3	71,200	78,800	10.67%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3,400	-5.97%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64,000	12.96%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26%	-3.10%p	+40.96%	-23.60%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765	-8.9%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1,415	40.1%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670	-9.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9,230	-17.1%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0,510	0.0%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4,955	-5.2%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7,970	-15.6%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300	-6.8%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4.43	12.2%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37	-2.1%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90.69	2.6%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4.48	1.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74.29	76.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4.19	-3.9%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80.13	-1.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9.38	2.0%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증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117.9,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1.1%,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0.6%,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1.4%, 이전치 1.1%) - 미국 8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98.7,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2.7%,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3.8%,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0.8%,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2.65%,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5.3%,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1.6%,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7.4%,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 51.0, 이전치 51.7)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E 0.5%,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E 4.9%,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주주 (E --,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2%)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